

양계남 작 '낙낙한 겨울'



윤재우 작 '테라스'



고화흠 작 '무제'



천경자 작 '화환'

바람 빛 물결

기증작품에 담긴 남도의 자연과 예술

예술품 기증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함께 작가와 일반인들에게 기증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유하며 기증자의 뜻을 되새기고 후세대에까지 있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총 566점 소장품 가운데 158점의 기증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의 약 28%로, 이 중 전남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은 28%인 120여 점이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기증 작품은 남도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남도만의 문화적, 예술적 정체성과 특질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도립미술관 기증전시실 개편 천경자·고화흠·양계남·윤재우 기증작품 11점 전시 힐링 선사

있어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감성도 선사한다.

도립미술관은 기증 작품을 토대로 남도의 자연과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지난 7일부터 1층 기증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바람 빛 물결' 전시 그 첫. 천경자, 고화흠, 양계남, 윤재우의 작품 11점은 남도의 자연과 풍경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다. 이들 작가들은 저마다 고유의 조형 언어와 감

정 이입으로 자연을 해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람객들은 작가들의 그림을 텍스트 삼아 의미를 재해석하고 오늘의 시대와 견주어 새로움과 차이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증 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전하고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공공 자산인 기증 작품을 매개로 남도의 자연, 미술사를 감상하고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전시실에서는 전통 채색화 기법을 토대로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구축한 천경자의 작품을 만난다.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작품 세계를 펼쳤던 천경자 화가는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

향 고향에서 특별전이 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작가는 그림 외에도 진술한 글, 용기 있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상상력을 선사했다.

고화흠 화가는 한국적 자연주의에서 서정적 추상으로 나아가는 작품 세계를 구현했다. '무제'는 표제만큼이나 하나로 한정할 수 없는 작품의 특질을 반영한다. 그림 이면에 드러워진 한국적인 정감과 아련함은 추상적 이미지와 맞물려 색다른 감성을 느끼게 한다.

지난 2023년 별세한 월아(月娥) 양계남은 동양 정신에의 충실을 모토로 자연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동양화의 운필법으로 묘사한 서정적, 고아한 세계는 그가 추구했던 예술 세계의 지향점을 보여준

다. 특히 한국적 문양과 색채에의 탐닉은 한국적 자수를 모티브로 한 세필묘사에서 연유한다.

또한 경쾌하고 자유로운 색채로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한 윤재우의 작품도 이색적인 미감을 선사한다. 붉은 선과 투박한 색감, 두터운 질감이 묻어나는 조형성은 지고한 예술의 깊이를 보여준다.

김민경 학예팀장은 "기증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사도 훑어보고 남도의 자연과 예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시가 향후 기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립미술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클래식 1세대 '백건우와 모차르트'

3월 8일 GS칼텍스 예올마루

피아노 건반 위에서 69년 시간을 보내온 백건우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1세대 역사를 쓴 인물 중 한 명이다. 1956년 열 살 나이로 해군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해 데뷔했던 그는, 부조니 국제 콩쿠르와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 등을 석권하며 음악계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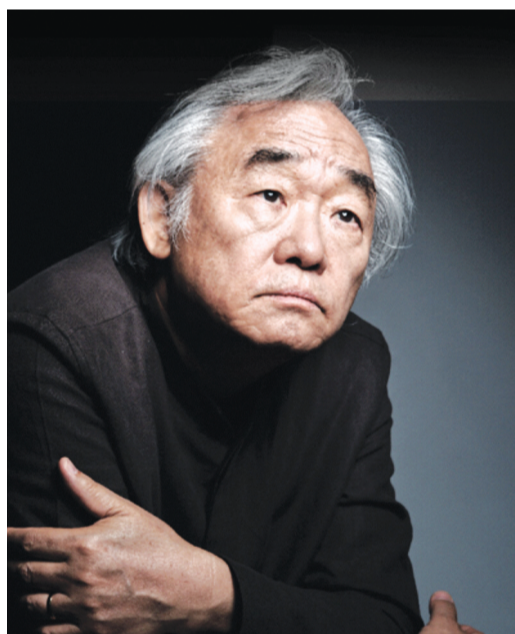
백건우는 작년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을 발매했다. 앨범 커버에 초등학교에서 그린 자신의 자화상을 입혀 이목을 끌었으며, 발매와 동시에 17개 전국 투어도 앞두고 있다.

GS칼텍스 예올마루가 '백건우와 모차르트'를 오는 3월 8일 오후 5시 예올마루 대극장에서 펼친다. 모차르트의 곡 여섯 편으로 채워지며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

공연 문을 여는 곡은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K.545'다. 1788년 빈에서 작곡된 이 작품은 가장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이어 '론도 a단조 K.511',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 K.280' 등이 울려 퍼진다.

모차르트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C장조 K.356(617a)'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작은 장례식 행진곡 c단조 K.453a',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조 K.330', '환상곡 c단조 K.475' 등 다양한 조성을 오가는 작품들이 준비돼 있다.

한편 백건우는 런던 위그모어홀, 베를린 필하모니홀 등에서 독주회를 진행했으며 BBC 프롬스 페막 무대에서 BBC 심포니와 협연, 1993년 프로코



피아니스트 백건우 <예올마루 제공>

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으로 디아파조상을 포함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문화 기사 훈장'을 수여받고, 제6회 성정예술인상을 수상했던 이력도 있다.

2010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변주곡집'을 발매했으며 2020년에도 슈만 신보 발매와 함께 리사이틀 투어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R석 7만 원, A석 3만 원, 청소년 전석 1만 원 등, 인터파크 티켓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야기로 존재하는 나... 그리고 '그림이 된 이야기'

28일까지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

사람은 저마다 예술가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다. '나'라는 정체성을 매개로 다양한 환경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언어로, 그림으로, 노래로, 영상으로, 드라마로 구현한다.

흔히 다양한 미적 방식으로 타자와 소통하고 이를 결과물로 남기는 것을 예술이라 한다.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방식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이색적인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28일까지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펼쳐지는 '그림이 된 이야기'가 그것. 이번 전시는 지난 2023년 진행됐던 이야기꽃 도서관의 '나는 책이야' 프로젝트가 모티브가 됐다. 작품들 거저에는 모두 '이야기로 존재하는 나'라는 이미지가 투영돼 있다.

주홍 작가의 지도와 10명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로,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정리하고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전시에는 권미지 광주대 언어치료학과 교수 등 10명의 시인 작가가 참여했다. 이밖에 김리영, 김지영, 김홍란, 윤화진, 이일순, 장소영, 정영희, 최정숙, 유봉순&주박하 등이다.



전시실 장면.

이번 전시에 '말하고 싶어'라는 작품을 출품한 광주대 권미지 교수는 "평소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그림책 제작에 관심이 많은데, 말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조금 낯설어도 기다려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대한 내용을 그림에 담았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소소하고 자화상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을 만나게 된다. 세상은 소란하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밀려오지만 저마다의 삶을 그림에 담아낸 이들의 열정은 그대로 우리네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림 지도를 했던 주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짧은 글로 표현한 10명의 그림책과 원화를 볼 수 있다"며 "언젠가 함께 그림책을 펼쳐 전시하기로 했던 그 시간이 이번엔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인공의 다음 이야기가 연재소설처럼 궁금했다"며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된 10의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의 문화·역사·건축적 가치 탐구

광주극장·조선포 산학협력단

27일 동구청서 학술 심포지엄

1935년 개관 이래 90여 년 지역 영화사와 함께한 '광주극장'은 국내 최고(最古) 단관극장 중 하나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존 필요성과 건축유산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비교적 부족했다.

광주극장, 조선포 산학협력단 등이 '건축유산의 가치 탐구'라는 주제로 광주극장의 문화·역사·건축적 가치를 탐구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6층).

현직 전남대 명예교수의 기초 강연 '광주극장, 광주 근대 건축'을 시작으로 전남대 위경혜 연구교수의 '극장의 역사와 지형도'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

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90년의 역사, 광주극장의 버려내고 존재하기'라는 주제로 지역 극장사와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조선포 건축학과 신웅주 교수는 '광주극장의 건축특징과 가치 재고', 연세대 이연경 교수는 '변화하는 유산 개념과 유산 만들기'를 발표한다. 심포지엄은 송석기(군산대) 교수, 강성원(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표, 김태일(제주대) 교수, 주상훈(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끝맺는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극장의 문화예술적, 건축학적 가치를 찾고 지속 방안을 탐구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90년 극장사를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근대건축의 양식을 간직한 문화유산인 광주극장의 가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신청 없이 현장 방문.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승규·플라스틱·유니크 첼로 콰르텟, '영 에든버러 무대 선다'

28일 프린지 축제 후원행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승규 작곡가(크리에이티브아트 대표)와 플라스틱·유니크 첼로 콰르텟이 올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을 앞두고 있다.

폐 플라스틱, 농약 분무기통으로 만든 악기들은 독특한 외형과 음색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크리에이티브아트가 행사 참여를 앞두고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후원행사 UPCYCLD MUSIC'을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에 연다.

이승규 작곡가는 "수익금은 축제 참여를 위한 체류비, 공연장 및 장비임차, 등 록비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매년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세계 공연유통의 중심지에서 '기후 위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공연은 이승규 작곡가, 플라스틱 콰르텟, 유니



이승규 작곡가



플라스틱 콰르텟

크 첼로 콰르텟의 연주로 채워진다. 먼저 이 작곡가는 자작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 중 '채두루미', '상괘이', '수달', '흰코뿔소' 대목으로 관객을 만난다. 저마다 동물의 움직임을 피아노 선율로 재해석한 곡들이다.

이어 플라스틱 콰르텟은 비틀즈 '아이델', 마로니에 '카테일 사랑' 등 익숙한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이승규가 작곡한 '이계, The Two Seasons'

중 '사라지는 얼음', '녹색의 기억' 등은 기후위기와 맞물린 악곡들이다.

끝으로 유니크 첼로 콰르텟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러시아의 춤 '트레팍'을 들려준다. 이외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벨라스케스의 '베사메무소'도 연주할 계획이다. 감동 후불제(관람비 자율).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